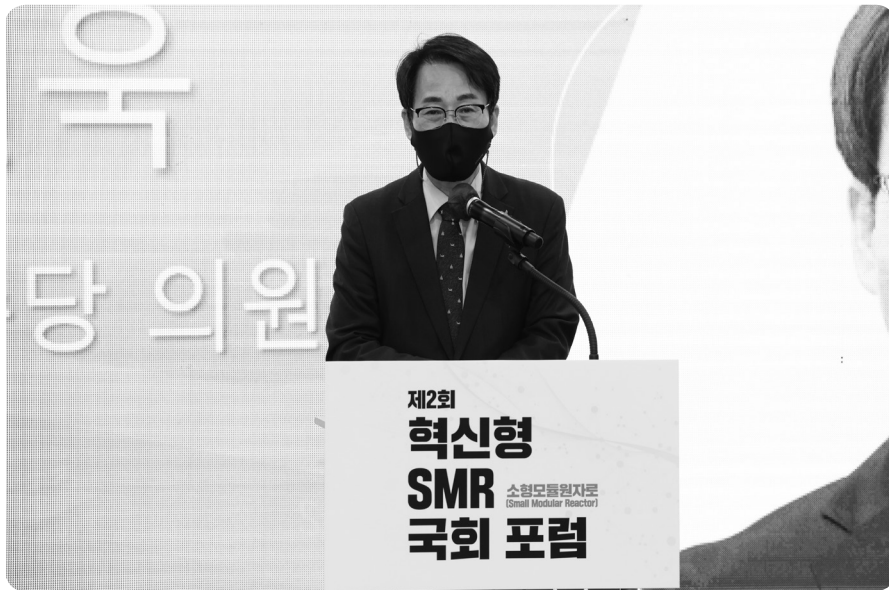


## “혁신과 축적으로 SMR 개발을 함께 합시다”

이원욱

혁신형 SMR 국회 포럼 공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정감사를 앞두고 뜻 깊은 포럼이 개최될 수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지난 출범식에서 영화 ‘판도라’를 언급하면서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발전된 기술로 탄소중립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그냥 선언 아니야?’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데, SMR이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혁신과 축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모든 것이 축적과 혁신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다른 축적과 혁신이 이루어지는 반복을 거치면서 기술력이 고도화되고 이에 따라 인류의 여러 난제들을 해결되어왔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1963년생인 제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만해도 ‘지구상의 인구가 60억 명을 넘으면 식량난으로 모든 인류가 굶어 죽을 것이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재는 그렇지 않고 농업 분야에서 혁신과 기술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식량이 남아도는 상황이 발생했습니

다. 이 과정이 인류가 해쳐왔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의 뛰어난 점이 이런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학과 기술을 공포, 이념 그리고 집념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왜곡되고 굴절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나’생각이 듭니다. 과학은 말 그대로의 과학, 기술은 말 그대로의 기술로써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발전소는 국민 아니 전 세계의 인류에게 많은 공포를 주었고 안전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어느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인류 전체의 생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후변화를 2℃ 정도 낮추지 못한다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식량난, 침수 피해 등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 기후학자와 과학자들이 보편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천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혁신형 SMR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라는 내용이 발표문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최종 단계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최종 단계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공동으로 발표한 것, 그것은 ‘SMR에 대한 중요성을 한미 간 공동으로 인식했다’라는 것과 함께 ‘한국과 미국이 SMR을 개발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이라는 것을 서로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길 중 하나는 ‘혁신형 SMR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영식 의원님, 양정숙 의원님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차관님을 비롯한 발표자들께 ‘대한민국의 미래뿐만이 아니고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자리가 오늘이 이 자리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갑시다! 어려운 길이고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함께 갑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KIIF**